

# 따뜻한 감성으로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

노여운·임남진·허수영·황선태 '재현과 위로'展 6월2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주변 풍경과 일상의 감정을 따스하게 재현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에 기념해 오는 6월2일까지 열리는 특별기획전 '재현과 위로'다.

전시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노여운, 임남진, 허수영, 황선태 4명 작가의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노여운작 '기다리다'

노여운 작가가 그린 골목의 이발소, 슈퍼, 세탁소 등은 아련한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하게 하며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지금까지 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풍경을 기록하듯 그리고 있다. 오래된 건물, 낡은 가재도구들, 자투리땅에 심은 채소 등에는 삶의 흔적이 정겹게 배어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흔적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황선태작 '낮잠'(왼쪽)과 임남진작 '나는 너는'

임남진 작가는 도시의 파란 하늘, 낮달, 전봇대, 전선 위의 새와 같은 평범한 풍경을 감각적으로 그린다. 단순한 구성과 한지에 염색하듯 그린 색감은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작품 속 지독한 고독함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오히려 충만감으로 다가온다. 최근작인 언서 시리즈 속 클로즈업된 편지 봉투는 형식적 단순함과 그곳에 담긴 깊은 사연이 보여주는 이중성이 매력이다. 단순 명료한 화면과 깊고 조용한 색이 주는 힘은 작가 본인의 깊은 정서를 재현하고 있다.



허수영작 '100 orchids'

허수영 작가는 하나의 캔버스에 식물도감 속 모든 식물이나 1년 동안 변하는 사계절 풍경을 그려 그린다.

그는 중첩하는 이유에 대해 누적된 물감의 두께는 그럴 때 당시의 기분이나 생각이 내포된 응어리 같다고 이야기한다. 반복해 누적된 물감의 두께는 작업 당시 작가의 생각이나 기

분의 응축을 담아낸 듯하다. 깊은 내면을 끌어올리는 듯한 창작의 결과는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러한 재현의 누적으로 만든 노동의 결과물은 작가의 수많은 감정의 덩어리이며, 비로소 그림이 된다.

빛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황선태 작가는 주변 평범한 실내 공간과 그 공간에 놓인 소파, 의자, 화분, 침대 등을 선으로 묘사하고 LED 조명으로 빛을 구현한다.

작품이 주는 따뜻한 온기와 깔끔한 시선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새로운 표현기법 또한 즐거움을 준다. 사포질된 반투명 유리의 안개 같은 질감과 일정한 굵기의 녹색 선으로 그려진 사물은 깨어지기 쉽고, 감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작품에 전원을 넣는 순간 따뜻한 온기의 빛이 들어와 가장 푸근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관람객에게 전해준다. /최명진 기자

#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신임 예술감독에 노부영씨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신임 예술감독에 노부영(59·사진)씨가 임명됐다.



-2009),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2011-20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감독(2020-2022)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이수했으며 KBS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국립국악원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명진 기자

1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노 감독은 공개모집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됐다.

최초 임기는 2년이며, 업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노부영 예술감독은 대금 전공으로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1987-200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휘자(2008



'Dot-Existence Robert Michum'(왼쪽)과 'Dot-Existence Vivien Leigh'

# 점묘적 터치로 피워낸 생명의 형상

안승민 개인전, 28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는 점(點)으로부터 존재한다.'

점묘적인 터치로 형상을 완성해가는 안승민 작가 개인전 '점-존재 Dot-Existence'가 오는 28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을 비롯해 존 웨인, 비비안 리, 데보라 가 등 유명인들의 모습을 담은 '점-존재(存在)' 시리즈와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점-허(虛)' 시리즈 등 회화 25점을 선보인다.

작은 변화를 담고 있는 점들이 결합하고, 형태를 이룬다. 흩뿌려진 점들은 인물이나 꽃, 만화 캐릭터로 다시 태어난다.

작가는 작은 점 하나에도 생명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한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세상을 이루듯, 수많은 점들이 모여 그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점을 통해 존재와 소멸에 대

한 사유를 이끌며 인간 실존과 허상의 세계에 관한 생각을 함축적으로 담아낸다.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의 작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행해온 반복행위의 과정에서 자아의 통일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관계자는 "작가의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며 "그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면을 비워나가는 과정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안승민 작가는 프랑스 앙제 고등조형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일본·서울 등에서 19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김해비엔날레, 광주서구예술인협회전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활동 중이다. /최명진 기자

#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희원이 전하는 위로

'시민과 함께하는 화가 한희원'展...27일까지 서구문화센터



한희원작 '꽃과 마을'

따뜻한 감성을 품은 한희원 작가 작품을 도심 속에서 만나볼까. 광주 서구문화센터는 오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화가 한희원' 전

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특유의 두터운 질감으로 그려낸 '바이올린 켜는 사람', '생의 꽃', '상처 난 별을 향해 걷다' 등 30여점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존재와 시간'을 주제로 화업 50년을 돌아본

한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친 일상 속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한편, 한희원 작가는 2015년 유년시절을 보낸 양림동에 자신의 이름을 딴 한희원미술관을 개관해 일상 속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공간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캠페인

##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111년의 시간 그리고...

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매일 송정역시장' 이 시작되었습니다. 111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바꿨고, 누워진 시간이 많은 만큼,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휴 휴무- 매월 넷째주 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산구

문의 : 062)650-2099